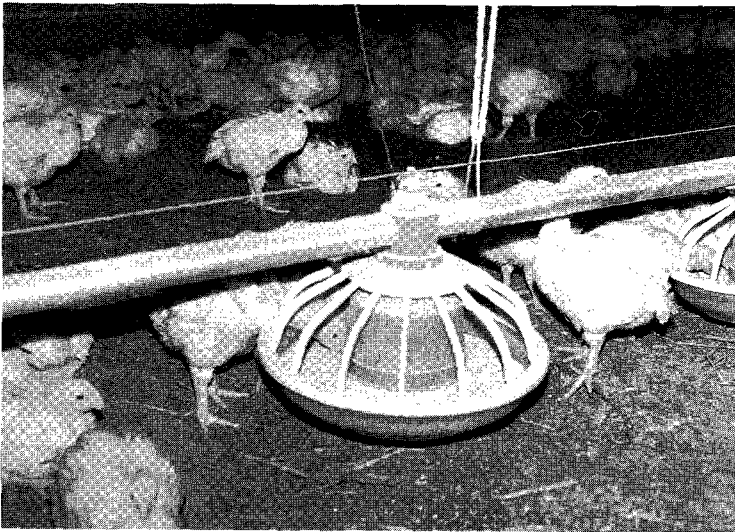


종란수입, 무리한 냉동 비축이 장기 불황을 자초했다.

□ 정리/김종준 기자



'96년의 육계산업은 연초부터 가격적으로 초강세를 유지해 오다 중반 복경기를 지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어왔고 계속되는 국내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비부진 등 제반 여건에 의해 회복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황의 원인은 엄밀히 말하자면

생산조절, 즉 생산과잉 실태에서 비롯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 생각된다.

1. 정체된 닭고기 소비

'96년의 소비 추세는 감소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월별 소비동향을 보면 1월말

신선육보다는 기호성에 있어서 크게 떨어지는 수입 및 국내산 냉동품이 일제히 유통됨에 따라 결국 전국적인 닭고기 소비 감소를 부추겼고 2월에 들어서면서 설날을 전후한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적었으나 소비 또한 증가 추세가 없었던 것은 축산물 안전성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3월은 정월 대보름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는 감소되었는데 각 학교의 개학과 닭고기 가격의 고가 지속이 소비위축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보름 1주일 뒤부터는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장기간 계속되지 못하고, 4월말에 이르러 소비정체 현상까지 빚어졌다. 5월의 닭고기 소비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4월 대비 닭고기 소

비지수의 대략 11.6%가 증가하였다. 6월의 소비는 별 진전이 없이 진행되었고 7월 12일부터 이상기후가 계속되어 소비에 악영향을 끼쳤다. 8월 중순까지 북경기에도 예년의 소비와는 달리 부진함이 계속되었다. 9월 6일 사계 불법유통건이 방송에 보도된 후 닭고기 소비는 꾀꾀 얼어붙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10월은 국내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둔화가 지속되었지만 해마다 추석 직후 닭고기 소비는 대폭 감소되어 하락세를 나타냈던 것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10월 중순이후 닭고기 소비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모 방송사가 시중 유통닭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로 몇주간 오름세에 있던 소비를 20~30%까지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여기에 11월에 일간지마다 콜레스테롤이 돼지고기 보다는 닭고기에 많다는 기사가 등장하면서 닭고기 소비는 감소하여 밀바닥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중계입식 현황

'96년 10월까지의 P.S의

표1 '96년도 육종중계 입식, 육계 사료생산 및 출하가격

구분	육종중계입식현황(수수)			96년육계사료생산실적			육계산지출하가격(서울, 원/kg)			
	94	94	96	전기	후기	출하기	95		96	
							1	2	1	2
1월	230,820	183,950	240,000	52,734	34,539	188	1,190	1,190	1,323	1,323
2월	293,130	181,900	444,500	49,737	28,475	349	496	1,443	1,766	1,776
3월	372,170	402,320	494,100	59,258	27,733	97	1,852	1,852	1,871	1,916
4월	312,260	363,200	374,450	79,650	40,471	92	1,403	1,403	1,567	1,577
5월	274,820	369,300	324,000	87,793	53,835	111	1,185	1,185	1,100	1,100
6월	356,050	323,380	343,140	97,093	58,357	891	922	922	970	970
7월	368,700	327,700	393,160	99,545	66,688	418	1,090	1,090	1,048	1,048
8월	423,650	455,200	492,800	81,675	56,850	166	1,024	1,024	1,077	1,103
9월	373,320	506,270	284,800	58,837	46,019	169	1,110	1,230	610	667
10월	502,700	380,400	320,100				1,403	1,445	742	800
11월	362,000	282,920					1,078	1,098		
12월	248,955	241,160					961	961		
계	4,118,575	4,015,300	3,711,050	666,322	412,967	2,481				

입식물량은 3,711,050수, '95년 3,491,220수, '94년 3,507,620수으로 '96년의 P.S의 입식물량은 410만수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었다. '96년도의 북경기를 대비한 '95년도의 8월, 9월의 중계입식 물량은 959,070수로 '94년의 796,970수보다 17%가 증가한 물량인데다 수입 닭고기가 복을 전후하여 출하를 앞두고 있어 올해 북경기는 그리 밝지 않다고 전망하여 왔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95년 후반기 이후의 중계생산성이 10%내외까지 떨어지고 겨울철을 맞아 최악의 상태로 나타났지만 '96년 1, 2월의 중계입식 물량이 684,500수로 '95년의 365,850수보다 87%

가 증가한 수수이므로 이것은 '96년 4/4분기 육계가격의 하락을 유발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3. 생산비 밀돈 육계가격

'96년 1월 육계 가격은 1,200원으로 포문을 열었다. 1월말 육계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자 냉동육을 취급하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출고를 중단하였고 당시 하이(대닭)의 체화량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육계값은 조기에 호가를 회복할 수 있었다. 2월에 들어서 육계가격이 호가를 달렸던 것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병아리 값이 하락되자 다수 종계를 강제환우시킴으로서 1월부터 병아리 생산숫자는 격감

되었으며, 특히 1월초에 생산된 병아리를 계열주체에서 입추하지 않았고, 육계생산성도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부에서 설날 물가안정 차원에서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도계작업을 일시 중단 시킴에 따라 상인들의 닭 구매에 있어 가수요에 따른 물량 확보를 부추긴 결과로 나타났다. 4월초 육계가격 하락세의 기류는 6월말까지 이어졌다. 6월 내내 1,000원선 이상으로 가격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은 육계가격이 생산비손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거래 닭값이 900원이 무너질 때 마다 계열주체를 비롯 상인들이 다량의 닭고기를 비축했으며, 또한 금년도 M.M.A 물량 1차 공매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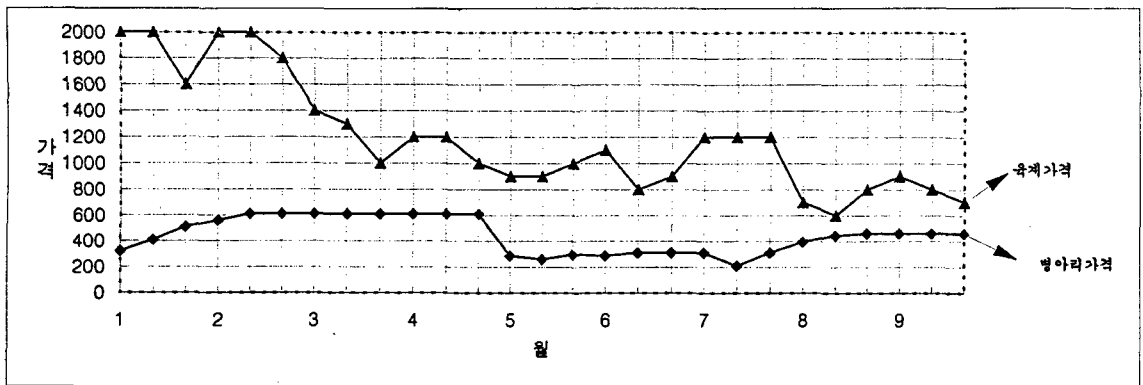
9,959톤에 대하여 6월말까지 모두 수입을 완료해야 하므로 상당량의 닭고기가 수입되어 냉동고에 보관중에 있을 경우와, 수입된 종란으로부터 닭고기 생산에 본격 돌입할 시기를 감안한다면 북경기 닭고기의 물량은 남아돌 것으로 앞서 이미 전망되기도 하였다.

7월 12일 초복을 전후로 하여 가격이 상승세의 물결을 타더니 7월 초순 가격은 1,400원으로 당초 기대가격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복 이후로 다시 육계가격은 800원에서 9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한 요인은 첫째, 5월 들어 병아리 값이 낮게 지속되자 중순에 입란될 종란을 하순으로 미뤘고, 둘째, 7월 들어 수입된 종란으로 부터

닭고기 생산이 적극 가세되었으며 셋째, 계육을 다루는 특정업체에서 북경기에 대비한 육계가격을 무리하게 인상시킨 결과 초복을 전후하여 닭고기 소비가 예년에 비하여 훨씬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말복 후로 가격 하락이 계속되어 9월의 육계가격의 최저 가격은 500원, 최고가격은 800원 그야말로 병아리가격과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출하해야만 했다. 9월달의 육계값이 생산비에도 못미친 원인은 국내경기침체로 닭고기 소비의 감소,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 상승을 기대한 나머지 다수 농가가 출하를 지연시켜 생산량이 급증, 지난 5~6월에 생계값이 저가에 형성될 때 비축된 다량의 계육에 대하여 판매시기가 가까워진데



주) 육계가격은 병아리 입식후 42일의 가격임

<도표 1> 육계가격과 병아리 가격비교

다가 수입된 물량까지 출하시기를 노리고 있어 가격상승은 어려웠다.

추석 직후 닭값이 하락할 것에 대비하여 9월 하순들어 대닭을 중심으로 판매 또는 비축을 실시했으며 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8월 초순에는 살인적인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8월 하순의 육용실용계 생산이 감소되어 오히려 육계값이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8월 중순이후로 계속되었던 1,000원 이하의 육계값이 11월 7일자로 1,0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4일간 지속되다가 또다시 세자리숫자로 하락했다.

이것은 11월 시세가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다수 농가가 10월하순 세미를 중심으로 일제히 출하를 실시했으며 특히 세미값이 kg당 1,000원 이상 높게 형성될 때 다수 계군을 조기에 출하시킨 결과 11월 들어 큰 닭 중심으로 출하가 되어 일시 공백이 나타난 결과였다.

금년 월말까지 1,000원대를 언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사료생산 동향

'96년 종계사료 물량은 예년에 비하여 6.8%가 증가한 반면 육계사료물량은 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기 중에 닭고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5월에 생산된 종계사료는 2만 7천 9백여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2%가 증가했는데 초복을 전후로 출하될 육계에 영향을 미치는 종계사료에 비해 말복에 영향을 미칠 종계사료가 19.7%가 감소했다. 같은 시기 육계사료 물량은 예년에 비해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기 후 가을철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칠 6~7월에 생산된 주간 종계사료는 평균 2,000톤 내외로 유지되던 것을 8월 이후 계속 감소된 것으로 보아 종계공급을 수요량에 맞게 조절하려는 종계업자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5. 결언

'96년 육계의 불황이 길고도 험하게 계속되었던 원인은 닭고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하여 수입종란을 유입시켰고 M.M.A물량을 북경기를 대비하여 집중 수입한 여파와 계열업체가 육계가격이 생산

비 이하로 하락할 때마다 비축한 1천여만수 이상의 물량이 하반기 육계출하 물량과 합쳐져 생산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국내경기 불황이 겹쳐 닭고기 소비도 감소되었고, 1/4분기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의 각 신문과 방송에서 닭고기 유통의 위생 문제와 닭고기내 살모넬라 존재여부 논란, 콜레스트롤 함유량의 과다 문제가 보도되면서 닭고기에 대한 소비심리는 불안감으로 차게 되어 소비는 예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96년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441,675천수로 95년에 비하여 6.2%가 증가하였고 병아리 생산수는 9월말 현재 417,701천수로 95년 대비 1.6%증가하였다. 96, 95년에 영향을 주는 종계입식물량은 각각 3,369,850수, 3,047,495수로 '96년의 물량이 10.5%로 증가 되었으며, 육계생산성도 예년에 비해 다소 호전되어 어쨌든 소비보다는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던 한해로 정리가 되고 있다. 양 14